

#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안)

의안번호 47

제안년월일 : 1998. 11. 10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1. 주 문

- 지역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이 많은  
충북은행을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건의

## 2. 제안 이유

- 충북은행이 시중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건의
- 지역산업자금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충북은행의  
존치 건의

## 3. 참고 사항

“ 없 음 ”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만 도민과 기업 및 각 기관단체에서 범도민적으로 충북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있을뿐 아니라 금감위에서 제시된 각종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때에 합병설을 운운하는 것은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 지역 경제는 지난 구조조정시 도내 본사를 둔 중금사, 생보사, 리스사 등의 퇴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도민의 은행인 충북은행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전 도민의 깊은 염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  
금융감독  
위원회  
통일총  
통일부  
장관  
위원장  
님

이제 충북지역의 금융기관은 충북은행만이 남아 있어 충북경제의 유지, 회생을 위해서는 충북은행이 독자 생존하여 산업자금 지원은 물론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환경, 장학사업 등의 지역 밀착사업을 추진하고 낙후된 지역경제가 회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9월 21일 충북도 방문시 충북은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공인은 물론 도민의 기대 또한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충북도민의 희망을 헤아리시어 충북은행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국가 난국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